

불교방송 프로그래밍

제작비 절감·재원확충 중시 '신경영...' 등 교양프로 신설

불교방송(사장 상낙승)은 8일부터 IMF에 따른 제작비 절감 및 다변화 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보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BBS시광' '행복 스튜디오' '진리의 향기' '전국연결 620' '신경영, 성공시대' 등의 실생활에 유익한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특징. 또 다양하고 풍부한 들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분화 시켰으며 구성력과 질을 높이기 위해 PD 작가제 등을 도입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김양일의 시사매거진'도 'BBS 뉴스 리포트'로 이름과 포맷을 탈바꿈한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와 만났다.

신설 프로그램

■ '마음을 비우고' (월~일, 05:45)=바탕소리, 새소리 등 자연음을 배경으로 스님들이 명상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선을 유도하는 명상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 'BBS 시광' (월~토, 07:10)=각 분야의 명사들이 초창기 1일 한가지씩

의 주제로 강의한다.

■ '신경영, 성공시대' (일, 07:05)=IMF 위기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인들의 기업 경영 전략과 노하우를 듣는 기업 홍보 프로그램.

■ '행복 스튜디오' (월~일, 11:10)=IMF 시대 가정이나 사회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애환과 사랑을 담은 편지와 사연을 소개한다.

■ '진리의 향기' (월~일, 15:05)=불교신학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법공양' 책에서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을 발췌해 노래와 함께 전달해 준다.

■ '전국연결 620' (월~토, 18:20)=각 지방을 연결해 그 지방 소식 및 미담 등을 알려주고 각종 지방정보 등도 최근갈 경제한 음악과 함께 제공한다.

■ 'BBS 뉴스리포트' (월~토, 19:00)=뉴스와노라리 형식으로 그날의 주요 사건과 소식, 화제거리 등을 제공한다.

■ '오늘의 스포츠' (월~토, 21:50)=매일 열리는 스포츠 현장 소식과 화제의 스포츠를 집중 분석한다.

■ '우리의 찬불가' (월~일, 09:55)=법회나 불자회가 생활속에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가용 반가 합창단이 들려준다.



맑은 수행자상 'CF 포교'

청안스님 '스피드011' 광고 화제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포교하는 자세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SK텔레콤 '스피드 011 산사편' TV 광고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청안스님(62·서울 청안사주지).

이 광고는 대나무 숲길을 스님과 함께 걸으며 인생의 조언을 구하던 영화배우 한석규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자 한계가 민망해 한다는 내용. 그때 스님의 알 듯 모를듯한 미소와 클로즈업되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날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란 멘트가 흐른다.

서울공대 출신으로 26살 때 직지사로 출가한 청안스

님은 "1분도 방영되지 않는 광고를 위해 수없이 NG를 반복하며 3일간이나 고된 촬영을 해야했지만 보람있었다"며 "다양화된 사회현상에 발맞춰 스님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011 광고는 요즘 어디서나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대수와 청정하고 넉넉은 수행자의 모습이 유난히 시청자들의 가슴에 잔잔하게 다가오는 차별화된 광고라는 점에서 은연중 불교포교에 폭넓히 일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주일 기자

신행수기 당선작

나한도랑에서 맺은 인연①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

산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저 단순하게 가까이 절이 있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맺은 불교와의 인연은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회를 만들어 5년간 이끄는 것으로 이어졌다.

길지 않은 삶을 산 나였지만 슬펐던 일들과 어려웠던 일들이 다쳐왔다.

고등학교 2학년때의 일이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다. 진단 결과 '뇌동맥동맥류'라는 이름조차 희귀한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이 병이 수술을 하더라도

95%가 사망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며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 고통을 참다못해 수없이 혼절하며 신음하시는 아버지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 장남이라 은연중에 나를 의지하시는 어머니에게 간곡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저렇게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도 고통을 받을 것만 같으니 설사 돌아가신더라도 고통을 없애 드려 권히 가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그즉시 날을 잡았다.

수술받은 사람의 95%가 죽는다는 수술. 아버지를 수술실로 들여 보낸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미웠고 무섭게 떨었다. 그때 문득 부처님께 기도하자는 생각이 스쳤다. 단결음에 부산 감로사로 올라갔다. 주지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법당에서 정근기도를 시작했다. 오직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기원하며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무작정 관세음보살께 의지하면 한다는 생각에 기도하기를 14시간. 맘으로 흥건해진 땀을 추스리고 병원으로 갔다. 담당의사가 수술결과를 잘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도무지 깨어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2일째 되던 날. 의사의 권유로 임종을 지키려고 친척들도 모이고 장례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아버지가 움직이며 깨어나셨다. 14시간여를 일심으로 했던 관세음정근은 헛고생이 아니었다.

결국 아버지는, 의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적처럼 깨어나셨고 계속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생명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날로 호전되었다. 지금은 절에서 기도하시며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가정의 병고로 우리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게 힘들어졌지만, 부모님 모두 목숨한 불자가 되었고 친척들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확인하는 등 자연스레 인연봉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

특히 나는 이 기도를 계기로 정근을 생활화 하였다. 청년회를 5년간 이끌어 오면서 매주 정기회 때마다 기도에 대해 교학적인 공부도 하고 실제 수행도 병행했다. 그때서 우리 청년회회의 때는 기도소리가 부처님 전에 가득했다. 열심히 정근하고 또 정근하였다.

이러한 끈질긴 인연 때문일까.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게 살았다. 고등학교 때는 철없이 시간이 흘렀고 청년회 시절은 정신없이 뛰어 다니며 짧은 시절을 보냈다. 직장

을 다니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인연이 닿았다. 친구와의 갈등도, 사랑하는 이와 이별의 아픔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것 역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풀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과 인연도 어언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었다. 암암정진은 나에게 생소함보다 경계운 가락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맑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책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마음의 발을 가는 농우의 마음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재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4시간 관음정근 병고의 아버지 살려 '마음발 갈아 '나' 찾아야지'



그림·이준석



◇소도마작 '수사들의 간청' (부분), 1439년, 올리베도 마조레 수도원 소장.

법 또는 성직자 권위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주장자

달려있다. 산속이나 들판을 걸을때 울리는 방울소리를 듣고 벌레나 짐승들이 밟아 밟아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또 짐승이나 벌 등의 짐승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선이나 설법할 때에도 늘 가까이 해 법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고승들이 절고 다니다 꽃아놓은 지팡이가 자라 거목이 되었다는 전설의 나무가 사찰에는 많다. 주장자에 달린 6개의 고리는 육도중생들이 모두 해탈하라는 의미로 육왕장(六瓊杖)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에서 역시 지팡이는 지도자나 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다. 성화에서 지팡이를 든 자는 항상 사상(事象)의 중심에 위치한다. 모세는 주장자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유랑중 목말라 지친 무리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있다.

주장자는 수행자들이 주로 짚고다니는 도구이다. 주장자의 뒷부분에는 6개의 방울이나 쇠고리가 달려있다. 산속이나 들판을 걸을때 울리는 방울소리를 듣고 벌레나 짐승들이 밟아 밟아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또 짐승이나 벌 등의 짐승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선이나 설법할 때에도 늘 가까이 해 법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고승들이 절고 다니다 꽃아놓은 지팡이가 자라 거목이 되었다는 전설의 나무가 사찰에는 많다. 주장자에 달린 6개의 고리는 육도중생들이 모두 해탈하라는 의미로 육왕장(六瓊杖)이라고도 한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보조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소장.

수도권의 신(新)청학동에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전통의 산경표(山經表)에 따라 한남금북(한수이남, 금강이북) 정맥이 정통으로 흐르는 곳, 그 가운데 위치한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자연속의 삶을 주장하는 환경공동체, 개성이 독특한 재사·기인들이 자리를 틀고 모여 산다.

- 죽산면 용설리 전원마을 사람들 — SBS 이영희 FD/ 황철환·김혜정 부부/ 김진해·김아라 부부 및 이외극장/ 무용가 출신지혜 및 이외무대/ 외출티기 명의 김대균집과 연승진/ 월드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소설가 김경빈씨의 집과 명상원 (주한조선 98년 5월 14일자 사회면 기사중)

도솔전원마을만의 Know-how

도시인들이 항상 그리워하던 동심의 고향 마을·도솔전원마을 이상적인 전원 주거지의 신 개념을 안성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실현했습니다. '주'도솔'이 만드는 전원주택은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도솔의 건설철학

누가 집을 꿈꾸는가? 집구조에 관한 풍수지리학을 보면 양택(陽宅)의 법칙이 있어서 세가지의 요체(要素)가 있으나 이것이 곧 대문과 방 그리고 부엌이다. 대문은 식물이 출입하는 길이다. 방은 사람이 거거하는 방이며, 부엌은 먹고 사는 자본이라 했다. 모퉁이가 문과 방 그리고 부엌, 이세가지가 각각 제자리를 얻어 문(門)은 방을 탄생(生)시키고, 방(房)은 부엌을 탄생 시키며, 부엌은 문을 탄생시켜서, 삼자가 서로 상극되지 않게 화(和)와(和)상(相)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집주인의 본성(本性) 즉 운명과 합치게 된다. 자신이 풍왕하고 복록이 번성되며 수명이 장건장(長健)하게 된다고 했다. 백두대간 도솔산 밑의 풍수적인 최고의 길지(吉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어 도솔마을 전원주택에서 이루어 보십시오. 수천년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양택의 비전, 집의 구조를 알면 건강과 성공이 보입니다!

ARCHITECTURE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로 손꼽히는 곳, 딱딱드러있는 안성마을의 끝말지 -

"도솔전원마을"

이곳에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주택이 출발합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대학(무원)공업 전문대, 유아 방송 전문대, 안성 산업대, 중앙대)를 비롯 고등학교 7개, 중학교 9개, 초등학교 30개로 최고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격: 필지에 따라 평균 60만원~75만원. 분양 계약시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음

"산과물이 모두 편안한 곳으로 서로 어우러져 삽니다."



분양 사무실 TEL:(02)2811-515-6 FAX:(02)2811-517

주요주택 (株) 兜率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43-1번지